

유엔 전문가, 북측과의 회담 성과 내려면 인권이 핵심

제네바 (2018 년 4 월 25 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키타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고 비핵화 협상 관련 국가에 경고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의 인권과 필요(needs)를 제쳐놓고 비핵화 협상을 한다면 협상 결과가 위태로울 수 있다. 정부 간 합의만으로는 평화와 안보를 보장할 수 없으며, 차별없이 전적으로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 정책도 필요하다. 어쩌면 후자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특별보고관은 말했다.

남북은 오는 금요일인 4 월 27 일 11 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이어서 5 월 말 북미 간 정상 회담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미 정상회담 의제에 인권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시사했으나, 특별보고관은 인권 문제에 다시 집중할 때라고 본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와 마찬가지로, 관련국 정부 모두가 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방법으로서의 인권을 옹호하길 촉구한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협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은 익히 증명됐으나, 협상 초기부터 인권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실수이며 기회를 놓치는 격”이라고 특별보고관은 말했다.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 제출한 최근 보고서에 시급히 다뤄야 할 인권 문제 다수를 언급했다.

“한국전쟁 중 분리된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권을 바탕으로 접근하거나, 자의적으로 구금된 외국인을 석방하거나, 또는 제재 조치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의 경제권 및 사회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하는 방안 등의 의제는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으며, 곧 열릴 정상회담 의제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며 “동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유엔과의 협력에 얼마나 전향적으로 나서는지로 향후 협상에서 인권을 논의할 의지가 있는지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지도자는 4 월 21 일 핵 실험 및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특별보고관은 “당연하지만 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단 발표는 반가운 소식이며, 특히나 지난 수년간 분쟁을 시사하는 수사가 우려스러운 수준까지 도달했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조치”라며 “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인권에 있어서도 동일한 태도를 취할 때”라고 덧붙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근래 몇 년 간 여성, 아동 및 장애인 인권 상황과 관련된 메커니즘과 협력했으나, 특별보고관 방북 요청은 여러 차례 거부했다. 또한 해당국은 독립적인 인권 감시 요원이 접근할 수 없다.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위임권한과 협력을 시작할만한 기회이며, 공식 국가 방문을 허용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나 해당국은 인권 사안이 정치화됐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체제 보장”을 우려하는데, “유엔 메커니즘은 최우선적으로 주어진 인권 상황 개선에 기여하고자 구성됐기 때문에, 그 외 목적으로는 위임권한을 오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보고관은 근 시일 내에 동북아시아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며 2018 년 10 월 유엔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끝

토마스 오흐나 쿼타나(아르헨티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으로 2016 년 유엔 인권이사회 임명을 받았다. 인권 분야에서 20 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변호사로 미주인권위원회 변호사로 근무했으며,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 시절 아동 납치 문제를 다룬 비정부기구 마요 광장의 어머니들 (Abuelas de Plaza de Mayo) 대표로도 활동했다. 볼리비아 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 프로그램을 총괄한 바 있으며, 2008 년부터 2014 년까지 미얀마 내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직을 역임했다.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제도](#)로, 특별절차는 유엔 인권 제도 하에서 가장 많은 수의 독립전문가가 참여한다. 특별절차는 특정국가 인권 또는 전세계에 적용하는 특정 인권 주제를 다루기 위해 인권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특별절차 전문가는 유엔 직원 신분이 아니고 무보수로 자발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여타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며 개인 역량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유엔 인권 국가별 웹사이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서울유엔인권사무소 [웹사이트](#)

추가 정보 및 **언론사 문의**는 아래를 참조해주시요.

- **서울:** 영어 문의(for English)- Tarek Cheniti (+82 2 725 3522 / tcheniti@ohchr.org), 한국어 문의- 안윤교 (+82 2 725 3523 / yahn@ohchr.org)
- **제네바:** Olga Nakajo (+41 79 444 5515 / onakajo@ohchr.org)

기타 유엔 독립전문가 관련 **언론사 문의**는 아래 담당자로 문의해 주십시오.

Jeremy Laurence (+ 41 22 917 9383 / jlaurence@ohchr.org)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채택 70 주년**의 해입니다. 1948 년 12 월 10 일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역사상 가장 많은 언어인 500 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는 원칙에 근거를 두고 전세계인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70 주년을 맞이하여 세계인권선언의 위대함과 영향력을 재차 상기하고 세계인권선언의 근간이 되는 원칙이 퇴색하지 않도록 전세계인이 인권 옹호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Stand Up for Human Rights: www.standup4humanrights.org